열왕기상 18:17~19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 오십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열왕기상 18:36~40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의 대결은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갈멜산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을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당시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거의 비슷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

었다는게 아마 남유다와는 가장 큰 차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이름이 여러보암이었죠? 여러보암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단과 벧엘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왕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때까지 단 한 번도 우상숭배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왕 중에서 단 한 번도 한 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왕이 없던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공부할 엘리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은 또 누구입니까?

그것은 또 아합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악한 왕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을 한 명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합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좀 이제 왕들의 이야기하면 어렵죠? 오므리 그렇습니다.

저는 오므리 외우기가 참 쉬워요.

한국말 같잖아요.

오므리가요 아합왕의 아버지였는데 오므리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최고로 번영시켜놓았던 왕이 바로 오므리에요

남유다로 비한다면 솔로몬 때의 그런 치세를 북이스라엘 오므리가 이루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기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정치적으로는 잘했는데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그 오므리가 한 많은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단연코 자기 아들 아합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킨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그 딸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정략결혼인데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방 결혼이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악명높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비 중에 또 악명 높기로 단연 1위죠.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하나 있거든요?

남유다 왕에게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딸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남유다에서 같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유다 왕 이름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이 이제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놀러갔다가 예후에게 맞아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 여호람과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하시야라는 아이를 낳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가 북이스라엘로 놀러갔는데 거기서 예후한테 맞아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이 낳은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친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할머니가 되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가지고 6년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여호람하고 결혼할때는 남유다를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고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직접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를 죄짓게 만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방결혼에서 시작되었다는거죠.

아합이 이세벨과 이방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우상숭배로 점철되었고 또 그 딸 아달랴 때에는 남유다까지 시집가가지고 남유다까지 거의 우리말로 하면 말아먹고 그리고 그 손자까지 다 죽이고 또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아주 타락하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이방결혼이었는데 그 정점에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이 서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공부하고자하는 엘리야가 서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서있던 시대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럼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그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바알신은요 그 이스라엘백성들이 그 민수기 보면 발람이야기 나올 때 바알신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바알신 섬기는걸 근절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때는 바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바알신을 들여왔고 바알신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알도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바알신의 아내의 이름 바로 아세라죠

아세라 다른 곳에는 아스다롯이라고 나옵니다.

같은데요. 이 이세벨이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신을 북이스라엘로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해요 무엇을 낳는다든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나오게 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진히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갈멜산의 대결을 펼칩니다.

이런 배경이였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엘리야는 등장해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동안 우로가 내리지않을 것이다. 수년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생산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3년 반동안 닫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아합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걸보고 “아하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은 가짜였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는 거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야되는데 비가 안내리는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알신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바알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우상을 근절한다고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다 찾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죄를 뉘우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이 가뭄에서 벗어나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물을 찾아보자. 찾아서 물 근원에서 물을 얻으면 가축을 다 잃지 않을 것이다. ”

그런 오히려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자기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이 아합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다시 이 아합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신이 참신인지 한 번 대결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우리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대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은 조금 받을 수 있지만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당시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단이었고 죽여야될 사람이었고 그러고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한거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들 나하고 한 번 대결을 벌이자. 갈멜산에서.

너희 바알 믿는 사람들 다 나와라 바알 선지자들 다 나와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다 나와라 비록 나는 나 혼자지만 참 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한 번 대결을 벌여보자.“ 굉장히 당당하죠? 굉장히 용기가 있잖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게 쉽지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서는 믿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시대입니다.

더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조차도 자기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더라도 일부러 들어내놓고 말하진 않는 것이 우리시대에요.

이렇게 좋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신앙 하나 추스르기가 쉽지않은 시대가 우리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반대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에요.

그리고 한 번 해보자라고 목숨을 걸고 대결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대결을 펼칠만큼 용기가 있을 수 있었느냐 과연 엘리야 자신이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19장을 읽어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갔잖아요.

그냥 바로 도망을 직선거리로 해서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리고 로뎀나무아래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 할만큼 연약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초인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정말 두려워할 때도 있고 무서워할 때도 있고 때론 비겁할 때도 있었던 그

런 사람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아합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성령에 감동될 수 있었느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성령에 붙들림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뭘까요?

첫 번재 비결을 꼽아라 그러면 단연코 엘리야의 뭘 들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거든요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고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비가 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만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요 바로 기도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또 엘리야의 하나님은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이야기 했거든요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가장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은 전부다 다윗의 찬송과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에요.

1대1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야는 우리같은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풍성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믿을 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가르쳐줬겠어요?

혼자 시냇가에서 숨어살았는데 말씀이 부족한 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안 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두 번째 엘리야는 기도할뿐아니라 그 생활가운데 훈련을 직접적으로 받음으로써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요.

18장에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나와있지만 17장에는 엘리야가 훈련받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일 처음 훈련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작은 일, 끼니 하나를 해결하는 문제를 훈련받아야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끼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그걸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있을 때 먹을게 없었잖아요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가 몽땅 날아와가지고 한 달치 먹을 식량을 쌓아놓고 갔다면 엘리야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훈련을 받지도 못했을 거에요.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그 날 먹을 그 끼니에 필요한것만 줬어요.

물도 콸콸 넘쳤다면 엘리야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릿시내가는요 거의 뭐 시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거의 하수도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물, 떡 이것은 매일매일 간구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야했다는거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죠

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이 안나오는데 땅을 파야되나 자리를 옮겨야되나 까마귀가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놔야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엘리야를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에요.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시돈땅으로 보냈어요

거기 사르밧이라는데에 부자가 아닌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어느정도 과부냐 가루 한 움큼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자기 아들이랑 자살하려고 생각하던 과부에게 보냈다는거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를 가뭄이 끝날때까지 먹여살리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가 통에 한 통 가득 하나님이 주셨다면 엘리야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기름을 한 말을 주셨다면 엘리야가 조금 긴장이 풀어졌을지도 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딱 그만큼만 주셨어요.

그러나 계속 주셨습니다. 가뭄끝날때까지

작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죠?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자, 그것을 통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큰 훈련을 기도로서 통과했다는거에요.

물론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지난 3년동안 지난 수년 동안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죽은 아이를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훈련도 하나님이 안 주셨을 것이고 엘리야가 혹 그런 일을 당했다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하지도 못했을 거에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의 훈련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에요.

신앙이 한층 성숙한거죠.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을 때 엘리야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승리하게 하셨다는거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가 엘리야처럼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단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상속에서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시험을 주시고 시험이 아니죠

더 큰 연단을 허락하시고 또 그걸 통과했을 때 더 큰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크게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물론 다른게 많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겠다싶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 섰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낙담했거든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려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을 맡깁니다.

엘리야 생각에서는요 포기하고 죽는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보다 더 큰 최선을 남겨두셨어요.

엘리야는 아마 낙담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까지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왕은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낙담했을거에요.

낙담한 내용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9:14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

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낙심했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했는데 결국 나는 실패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더욱더 악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가 죽고나서 아니 엘리야는 안 죽었죠.

한 900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때가 언젭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아 자기가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거에요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9:30~31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쌔]

이 모세와 엘리야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로 약 거의 900년 가까이 되어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 말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거에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혹은 그것을 이야기 할 때 엘리야는 알았을 겁니다.

모세도 알았을 거에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에요

1,500년이 지나서야 '내가 준 율법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하고 바로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였구나' 알았을거에요.

엘리야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나의 회개의 사역이 이래서 필요했구나' 그거 알았을거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다고 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평생을 놓고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번 더 쓰시거든요

언제 씁니까?

칠 년 환란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번 더 쓰셔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말라기 한 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스가랴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4장에도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와 대응되는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1:3~6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찌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 보면 1260일 3년 반을 예언하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소멸한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태워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것처럼 마지막때에도 이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엘리야를 연상케하죠

또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다.

3년 반동안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데 과거 아합왕때도 이 엘리야는 3년 반동안 하늘문을 닫았거든요

마지막 환란 때 전 3년 반 동안에도 이 엘리야가 다시 와서 비가 오지 않게 그 일을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되게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오는 이 두 사람이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모세는 불분명하지만 성경적으로 엘리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에는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죽으려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의 끝까

지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거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이 되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거든요?

바로 휴거 됐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단이라고 그리고 여호와가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승천하는 걸 보고 그가 맞았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참 신이었다”라고 인정했을거에요.

우리도 어느날 휴거됩니다.

휴거될때요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할겁니다.

“그거 맞았다 그 교회가 옳았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그걸 알게 될거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엘리야의 출생부터 승천까지 대략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논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다음 뭐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믿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엘리야가 훈련을 묵묵히 받아내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날 나에게 주시는 훈련을 묵묵히 받아내고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거에요.

엘리야가 낙담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맡기거든요?

비록 엘리야가 살았을 때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후에 알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은혜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 지금 말고 그 날에 있죠?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그때 이해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알고 내가 비록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엘리야처럼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우리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허락하셨어요.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끝은 같은데 살아온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일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더더욱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